

“증(證)이 곧 실력은 아니다”

해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병원에서는 몇가지 현상이 되풀이되곤 한다.

첫째, 환자가 줄어든다. 둘째, 매년 시행되는 전문의 고시 때문에 마지막 년차 레지던트들이 소위 그룹 스터디를 시작한다. 셋째,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학회, 학술대회, 명절, 외국학회 참석 등 각종 행사가 판을 친다. 넷째로, 각종 오락 및 스포츠 행사가 또 가을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등산, 정구대회, 골프대회, 직원 체육대회, 수양회 등등 풍성한 모임이 많아진다.

이와 같이 많은 행사, 모임, 연구 발표 등은 결국 환자 진료를 약간 소홀히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의사, 간호사, 의료업 종사자들이 간혹 “환자진료가 우선”이라는 평소의 다짐과는 차이가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매년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은, 그 체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레지던트들의 생각에도 큰 문제가 있다. 어떤 병원에서는 아예 9월부터, 최소한 10월부터는 전문의 고시준비라는 명목으로 레지던트들이 일을 하지 않고 하루종일 모여 앉아 시험 준비에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최소 4개월, 최장 6개월까지 실제적으로 줄어든다. 교수의 입장에서 매년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반드시 이러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별 방법이 없다.

계속 레지던트 일을 하라고 하면 타 수련기관과 형평이 맞지 않고, 또 혹시 나중에 전문의 고시 공부를 위한 시간을 주지 않아서 시험에 불합격이라도 하면 어쩔까 하는 일말의 불안도 있어서 결국 이같은 관행을 묵인하게 되는 것이다.

하여튼 전문의 고시에 대한 비판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증 신드롬』이 특히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필자가 유학한 미국에서도 국가고시, 전문의 고시 등이 있지만, 학생들이나 레지던트들이 공부를 위해서 학생실습, 레지던트 일을 중단하는 예는 보지 못했다.

레지던트 시절, 필자 밑에서 일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Michael Hodapp이었다. 그 다음날 시험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시험 전날이 On Call (당직)이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주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시험은 전혀



윤 방 부

연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업무에 없는 것처럼 밤새 당직 의무를 다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다. 또한 같은 레지던트들(12명의 동기)도 전문의 고시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단지 “In Training exam” 즉 모의고사를 보고는 각자의 부족한 점을 지적받는 것이 전부였다.

양쪽의 차이를 보니, 첫째는 “증(Certificate)”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관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레지던트가 어떤 병원, 누구 밑에서 얼마나 많은 수련을 받았는가 보다는 소위 “證”이 있느냐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로 시험날짜의 문제다. 꼭 1월에 실시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예를 들어 수련이 다 끝난 후 적당한 시기에 실시하면 장소를 빌려야 하는 혼란도 겪지 않고 마지막 해의 수련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셋째로 시험문제의 출제·선택 등에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하겠다. 즉 교과서난 “Journal”의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충실한 수련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평가하는 시험문제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출제 위원의 발굴이 어렵다. 그리고 미국처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전문의 과정 수료자간의 사회적·학문적 차별은 없고, 그 의사가 수련받은 환경을 더 중시하는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와 같이 시정해야 할 문제가 많은 전문의 시험제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고시에서는 훌륭한 점수를 받았으나 실제로 수술이나 환자진료 능력에서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전문의가 상당히 있다.

이제 앞으로 의사 수는 점점 늘어서 인구 400명 정도에 의사 1인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또한 전문의 제도는 계속 발전되어 그 종류도 다양해질 것이며 그 중에 대한 선호도도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전문의 시험의 방법, 시기, 시험문제 출제, 출제자의 의식과 사회에서 생각하는 증의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 마지막 년차의 전문의 고시 준비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심한 경우는 책을 외워서 머리에 들어 있는 지식은 풍부하나 실제로 환자 진료에 중요한 실습, 실기는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전문의가, 다시 말해 “기형적인 전문의”가 탄생될 경우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㉔